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5. 5 | Vol. 25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29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6월 9일 제29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합니다. 이날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7월 27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력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 입 재 6월 9일(음. 4월 23일)
 - 초 재 6월 15일(음. 4월 29일)
 - 이 재 6월 22일(음. 5월 7일)
 - 삼 재 6월 29일(음. 5월 14일)
 - 사 재 7월 6일(음. 5월 21일)
 - 오 재 7월 13일(음. 5월 28일)
 - 육 재 7월 20일(음. 6월 5일)
 - 막 재 7월 27일(음. 6월 12일)
- ※영가 접수 받습니다.

준비물

-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 겂옷, 신발(짚신) - 시중에 준비
-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 공양미 - 3되3홑 또는 15,000원
- 수자력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Vol. 250호



- 04 깨침의 향기
관세음보살의 귀(2)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6 비슬산방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참뜻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광야의 나그네 · 본원스님
- 12 부처님이야기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부처님 생애(3) · 영일스님
- 16 불교상징의 세계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 · 조명래
- 20 법왕사 신도광장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 승혜스님
- 24 특집 | 부처님 오신날
평화로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세상 만든다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9(서기 2015)년 5월 01일 발행 | 통권 250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묘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운, 승혜, 자행, 강선옥, 강선희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귀(2)

원공당 정무 대종사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고, 흉보고, 잔소리하고, 흠집 내고, 들볶고, 힐난하고, 힐책하고, 충고하고...’ 이런 것은 모두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것 같이 재미 있는 것이 또 없다고 합니다. 친구끼리 모이면 밤새는 줄 모르고 험담하고 흠집 내고 그러는데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결점이나 어리석음이 보이면 한마디 말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노하게 하고 반감을 사게 하고 두고 보자는 복수심만 내게 하지 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충고 잘 받았습시다” 인사 한번 받아본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이나 남을 비난하는 것도 거듭 거듭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남을 비난한 뒤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신이 공격 당한 것 같이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남을 때리면 주먹도 아플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자꾸 그런 짓을 합니다. 마약 없이 살 수 없다면 마약 중독자, 술 없이 살 수 없다면 알코올 중독자, 비난 없이 살 수 없다면 비난 중독자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비난 선수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비판력과 분별력을 과시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



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남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사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자신의 잣대로 채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너는 게으른 자, 너는 둔한 자, 자기 생각에 그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비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인정받기를 굶주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간의 큰 욕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 말고 남을 존중하고 경청을 잘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바람을 피하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만 비판적인 사람, 시비꾼이라고 낙인 찍히고 맙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예방조치하고 싶은 버릇이 발동하면 그것은 이로운 습관이 아니니 얼른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은 비록 어려워도 그 만큼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인이 되고 덕인이 되고 귀인이 됩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남이 참견하면 언짢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친절함도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특별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자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삽니다. 누구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오해를 변론으로 풀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혜와 동정으로써만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변론에서 지게 되면 흥분과 복수심이 생기며 존경은커녕 상종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교관이나 사업가는 몰라도 우리 보통 국민은 변론이나 시비로써 성공한 법은 없습니다. 원수 맺지 않으려면 비난을 말아야 됩니다. 단정도 말고 막말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은 잘 들어오지 않고 나쁜 말과 못된 짓은 쉽게 알아듣고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원공당 정무대종사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참뜻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무명에 가리어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기꺼이 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삼계의 모든 중생이 귀의합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시어 저희들의 삼계의 대도사가 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만법의 왕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사월초과일,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날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멀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태어나지 못하고 말법시대에 태어나 어두운 번뇌 속에서 법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올해도 사월초과일은 어김없이 다가와 “여래는 오는 것이나 그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

다. 연등 준비하고, 마음을 청정하고 경건하게 가져 이 기쁜 날을 다함께 맞이하여 부처님의 공덕 가피를 입어야겠습니다. 이제 법왕사는 신도님들의 발심이 부처님과 호법 신장님들의 가호를 받아 명실공히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 가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말법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청정 수행승들이 서릿발 같은 수행가풍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처에 포교원력을 펼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법왕사는 25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발돋움했으며 '세계최대 불교복지 도량'이라는 목표에도 한걸음 다가가 해오름 요양원에는 부처님처럼 보살피는 어르신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9회째로 100분의 고승 대덕을 모시고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법석을 여는 백고좌대설법회도 봉행 중입니다.

큰 스님들의 사자후를 들으시고 반야바라밀의 싹을 틔워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의미있게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런 법회 모두가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소승은 항상 두손 모아 축원하고 있

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넓은 대발심의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피안과 열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넓고 깊게 실상을 파악할 지혜를 갖춘다면, 서방의 극락정토가 바로 우리 주위에 현현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웃이 바로 관음보살이요, 사바세계라 부르는 이곳이 바로 열반의 피안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 가슴 속의 번뇌와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불국토가 전개되는'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탐·진·치에 속박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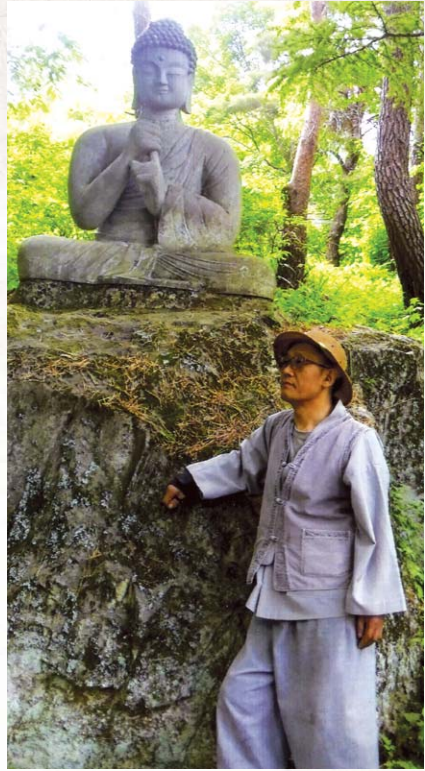
욕망과 시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성취시켜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번뇌와 불안과 공포를 키울 뿐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도시에 극락 또한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마음이 빚어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 몸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나 얻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소·돼지도 얻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사람 몸 받은 이 기회, 들을 귀와 이해할 수 있는 식을 갖춘 이 기회에, 참다운 소식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의 참모습이 결코 사바세계도, 지옥도, 극락도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의 조화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광야의 나그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삶은 곧 꿈속 세계의 연장으로 꿈은 꿈속의 꿈이며 꿈 깨임 그 또한 꿈인지라, 하여 질편한 희노애락의 수렁에 젖어 사는 인간사는 가소로운 일장춘몽(一場春夢)이고 인생은 취생몽사(醉生夢死)라 하였던가.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이란다. 산부인과 말이다.”
“그럼, 거기가 고향이에요?”
“뭘, 그런 셈이지.”
“왜 살아야만 하나요?”
“그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남들처럼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나요?”
“병원 장례식장(?)이지.”
“그럼 결국 아이 낳는 산부인과와 살다가 마지막 가는 곳,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닌 하나의 이어짐인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아니,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의문은 다 자란 청년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며 가지지 않는 잿빛 고뇌였다.

그 해(계미년), 입춘이 지난 이른 봄날이었다. 동안거 해제철이고 해서 그리운 도반도 만나고 산행도 할 겸, 가야산 해인사를 가려고 길을 나섰다. 해인사 가는 시외 버스를 타려면 서부정류장에 가야 하고 여가서는 동대구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한다.

출근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이라 승강장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붐비는 정도가 아니었다. 저마다 주어진 바쁜 일상을 위해 또 시작하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이제 곧 닥칠 전례가 없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데도 모두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부단히 움직이는 공간이동을 하며 살기에 불행한 사태, 예고 없는 위기상황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어두운 절벽 위의 길을 걷듯 위태위태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잠시 기다리던 흡으로 들어온 차에 몸을 싣고 빈자리에 앉아 편하게 눈을 감았다. 내릴 상당못(서부정류장)까지 20여분 남짓이면 도착할 것이다. 전동차는 미끄러지

듯 역마사 서고 달리며 대구역을 지나 다음역인 '중앙로'에 정차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고서 잠시 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가 싶더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른 객실 쪽에서 소란스러움과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로 일순간 모두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옅아 붙은 불에 전선이 나갔는지 차안은 금방 암흑으로 변해 캄캄한 지하에 갇힌 채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불타는 화염에 출입문이 잠긴 절박한 사지(死地)에서 미처 대피할 사이도 없이 찾아온 무상한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 만난 끔찍한 불문에 내 몸은 어느 봄날 그렇게 덧없이, 허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도록 살아 있는 채로 다 타버린 재가 되어 46세의 짧은 생을 접어야만 했다. 유독성 검은 연기에 질식하며 정신을 잃은 것이 내가 기억하는 전생의 마지막이었다.

내 몸이라 아끼고 소유하며 수십년 돌보던 몸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형상을 잃었으나 안에 깃든 주인격인 심식(心識)은 가던 길 그대로 가야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반들 곁을 그저 서성거릴 뿐, 그들에게는 몸을 잃은 내가 보이지도 않으며 소통이 안되는 것은 이승과 저승이 서로 다른 채널이자 공간이기에 보아도 볼 수 없음이리라. 허허로운 닳은 홀로 춘설이 분

분해 날리는 산자락 능선 너머 수려한 암벽 백운봉을 굽어보며 산하를 떠돌았던 탓에 갈증을 느끼며 물을 찾던 중, 한 순간 깨고 보니 생생한 꿈으로써 물을 마시고서야 비로소 꿈속에서 타던 조갈증도 사라졌다.

세계의 이목이 또 한번 한반도에 집중된 비극으로 유사 이래 인재(人災)로써 최악의 대참사였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일어난 그날(2월 8일 화요일)은 우수를 하루 앞둔 구름이 낮게 깔린 음산한 날씨였다. 그날 아침 나는 예정된 불일로 해인사에 가려고 지하철역(동대구)에 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다. 그런데 깜박 잊고 두고 온 소지품이 기억나 어쩔까 하다가 가까운 거리라 가지러 절에 왔다가 다시 간 역사에서 사고발생 소식을 들곤 발길을 돌렸다. 사고 시각이 9시 55분쯤이었으니 잊은 물건을 가지러 안 갔더라면 시간상 ‘죽전’ 방향으로 달리는 사고전동차에 탑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예,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

“애들아! 나 좀 나갔다 오마.”

“엄마, 일찍 들어오시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시간되면 밥 챙겨먹어. 늦으면 전화할게.”

그렇게 저마다 시작하는 일상의 ‘나섬’이었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그토록 가슴 저리는 아픈 이별이 될 줄이야……. 산 채로 다 타버려 한 줌 재로 변해버린 사고현장은 살아서 그 참혹함을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벼랑 끝 세상을 보는 듯한 아득한 절망이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이 기막힌 비극의 현실에 상심하며 모두가 일손을 놓고 한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큰 충격이었다.

이런 저런 생각과 아리는 잿빛 심정으로 며칠간 잠을 설치다가 혼곤이 잠 들면서 겪은 꿈이었지만 생시와 다르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욱 이상한 것은 가지도 않은 서부정류장 지하승강장에서 본 공익광고였다. 꿈에서 보았지만 깨어서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문구가 자못 흥미롭기도 하고 후시나 해서 며칠 후 거기에 가서 찾아보았더니, 다시 보아도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불전(佛典) 구절이 벽면에 걸려 있질 않은가!

한 바라문이 수행자에게 물었다.

석존의 제자들은 몹시 검소하다가에 얼마나 근검한지 알고 싶소이다.

- 오랫동안 입다가 헤어진 옷은 어떻게 합니까?

“그야 깨끗이 빨아서 기워 입지요.”

- 다 떨어진 누더기가 되어버린 옷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닦는 걸레를 만들어 쓴답니다.”

- 걸레로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총채(먼지털이)로 만들어 쓰곤 하지요”

- 다 닳아 쓰지 못하면 또 어디에 씁니까?

“아, 그것은 잘게 썰어 짚과 함께 진흙에 섞어 흙벽돌을 만들어 사용하지요.”

- 과연 석존의 수행자들은 듣던 대로 참으로 두타형(무소유·근면·검소)을 몸소 실천합니다.

도무지 생시가 꿈인지 꿈이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생시보다 더 선명한 꿈속이 더 생시 같은 생시였으니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생시는 꿈속의 꿈이요, 꿈은 생시와 다를 바 없는 현실 인즉, 삶은 곧 꿈속 세계의 연장으로 꿈은 꿈속의 꿈이며 꿈 깨임 그 또한 꿈인지라, 하여 질편한 회노애락의 수렁에 젖어 시는

인간사는 가소로운 일장춘몽(一場春夢)이고 인생은 취생몽사(醉生夢死)라 하였던가.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하늘을 날아 다니면서 자기가 장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잠든 사이 꿈속을 헤매다 문득 눈을 떠보니 자기는 분명 인간 장자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장자의 꿈에 나비였는지, 나비의 꿈에 장자였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는 이야기며, ‘장자’ 내편(內篇)에서 공자(孔子)는 이렇게 말한다.

“변화나 불변도 실은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사나 변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죽음도 단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집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

우리들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현재의 형체는 과연 자기이겠느냐? 꿈속에서 새가 되면 사람이란 것을 잊고서 하늘 높이 날고, 고기가 되면 물속 깊숙이 헤엄쳐 다닌다.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현실도 실제로는 꿈인지 어찌 알겠느냐?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부처님 생애 (3)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vol.249)에서 우리는 자따까 주석서 서문의 내용 중 부처님의 전생에 관련된 도입부를 간략히 다루었다. 거기에서 '먼 과거 이야기(dūe nidāa-kathā)'의 내용 중 첫번째에 해당되는 우리 시대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타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인 수메다 수행자가 엄청난 부를 버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일주일만에 8성취(atta samāatti)와 5신통(panca abhinna)획득하는 대목까지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8성취와 5신통을 성취한 수메다 수행자는 자신의 성취의 기쁨(samāatti sukha)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연등부처님(dīānāo nāa satthā)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연등부처님이 태에 들고,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처음 법륜을 굴릴 때 모든 일만 세계가 진동하고, 큰 소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32개의 전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수메다 수행자는 성취의 기쁨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전조를 보지도 못한다.

그때, 십력의 소유자인 연등부처님은 40만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유행하면서 람마까(rammaka)라는 도시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수닷싸나(sudassana)라는 큰 사원에 거처를 잡는다. 람마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연등부처님이 여기저기 유행하는 도중에 자신들의 도시에 도달하여 수닷싸나 사원에 머물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부처님과 그의 법과 승단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어, 정제되고 신선한 버터 같은 약품, 의복, 향, 꽃다발, 그리고 다른 선물들을 손에 들고 연등부처님께 기신 곳으로 간다. 그들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향수 등과 같은 것들을 보시한 후

에 한쪽에 앉아 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법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그들은 연등부처님을 다음날의 공양에 초대하고 물러간다.

다음날 그들은 값진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를 장식한 후에, 빗물에 의해 침식된 도로 곳곳에 흙을 뿌려 길을 평평하게 하고, 은빛나는 모래를 뿌리는 등 연등부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또한 꽃을 뿌리고, 깃발을 올리며, 다양한 색깔로 염색된 천으로 만들어진 장식리본을 설치한다. 그리고 바나나 나무로 된 아치와 물로 가득찬 단지를 배열한다.

그때, 수메다 수행자는 자신의 오두막거처에서 나와 공중으로 날아가는 도중, 사람들이 연등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지나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묻는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누구를 위해서 길을 장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대답한다.

“수메다 존자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법륜을 굴리는 십력을 갖춘 연등부처님이 유행하는 도중 우리들의 도시에 도달하여,

수닷싸나라는 큰 사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 세존을 공양에 초대하였고, 그 부처님-세존이 오시는 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메다 수행자는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생각한다.

“붓다(buddha)라는 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희귀하다. 더군다나 어떤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희귀한 일이다. 나도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합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수메다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이 길을 장식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장식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주시요.”

사람들은 주겠다고 동의한다. 그리고 수메다 수행자가 신통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에 씻겨나간 부분을 할당하여 수리하게 한다.

수메다는 기뻐하면서 생각한다.

“나는 신통력으로 이 지점을 수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곳이 그렇게 준비된다면, 나는 별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흙을 가져와서 그 지점에 던져 매운다. 그런데, 수메다가 미처 그곳을 다 메꾸어 준비하기 전에 십력의 소유자인 연등부처님이 40만명의 6신통을 갖춘 아라한들과 함께 마치 활동을 시작하려는 언덕위의 사자처럼 웅장하고 찬란하게 그 장식된 길에 들어선다. 이때 신들은 하늘 꽃다발과 향수 등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한다. 반면에 사람들은 세상의 꽃다발과 향수 등을 올린다.

수메다는 눈을 크게 뜨고 장식된 길을 따라 다가오는 십력의 소유자인 세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갖추고, 32가지 대인상(dvattiṃa mahāpurisa lakkhaṇāi)과 80가지 세부적 특징(asīiyā anubyanjanāi)을 갖추고, 아름다운 후광에 둘러싸여 번개불을 닮은 6가지의 부처색을 발산하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생각한다.

“오늘 나는 십력을 갖춘 세존에게 나의 생명을 희생하여, 세존이 물구덩이를 밟지 않게 하겠다. 40만명의 번뇌를 파괴한 아라한과 함께 세존께서 마치 보석발판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걸듯이 나의 등을 밟고 갈지이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오랜 동안의 행복과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수메다는 먼저 머리를 푼다. 그리고 자신의 사슴가죽과 결발머리, 그리고 나무껍질 옷을 검은 진흙물 구덩이에 펼치고, 마치 보석발판으로 만들어진 다리처럼 그 진흙 구덩이에 눕는다.

이렇게 누운 수메다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심력을 갖춘 연등부처님의 장중하고, 웅대한 모습을 보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람마시에 있는 승단에 사미승으로 들어가서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번뇌를 끊고 아무 결과도 없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력을 갖춘 연등부처님처럼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범의 배에 태우고, 윤회의 바다를 건넌 후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수메다는 8가지 조건과 함께 부처가 되겠다는 결의를 한 후 그곳에 눕는다.

여기에서 8가지 조건이란

① 인간으로 태어난 후 부처가 되겠다는

결의(용, 금시조, 신 등으로 태어난 후의 결의가 아님)

② 인간 중에서도 남성의 결의(여성, 내시, 무성, 양성 등의 결의가 아님)

③ 남성 중에서도 이생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을 갖춘 사람의 결의

④ 그러한 인연을 갖추어도, 살아있는 부처님의 앞에서 한 결의(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탐묘 앞, 보리수 아래에서 하는 결의가 아님)

⑤ 부처님의 앞에서 결의를 하였어도, 출가자의 결의(재가자의 결의가 아님)

⑥ 출가자의 결의였어도, 5신통과 8성취를 갖춘 자의 결의

⑦ 그런 조건을 갖추어도, 부처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결의

⑧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부처가 되려는 수행을 위한 큰 열망, 노력, 정진을 하는 사람의 결의.

이 8가지 조건을 갖추고 수메다는 아라한이 아니라 부처가 되겠다는 결의를 한다. <계속>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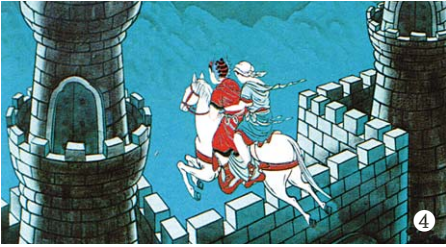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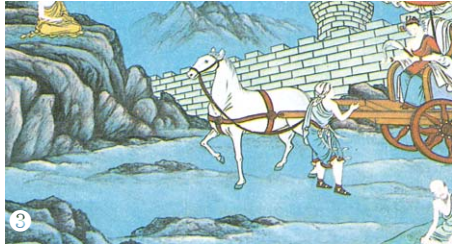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기간으로 나누어 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팔상성도라 하며, 달리 팔상시현(八相示現), 팔상작불(八相作佛), 석가팔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팔상성도(八相星圖)는 사찰의 팔상전이나 영산전에 많이 봉안되지만, 팔상전이나 영산전이 없는 사찰에서는 벽화로 조성하기도 한다.

팔상성도는 8가지 불화로 조성된다. 그것은 ①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상), ②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상), ③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 ④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 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상), ⑤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 ⑥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 녹원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는 상), ⑧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상)이다.

『도솔내의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護明菩薩)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카필라국의 마야 왕비에게 수태되는 장면을 묘사한다. 도솔천에 살던 호명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를 부모로 정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실을 불화로 그렸다.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카필라국으로 향하는 장면과 마야 왕비가 의자에 앉은 채,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장면, 정반왕과 마야 왕비가 자신의 궁전에서 바라문에게 꿈 풀이를 듣고 있는 장면 등이 전부 묘사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 타고 마야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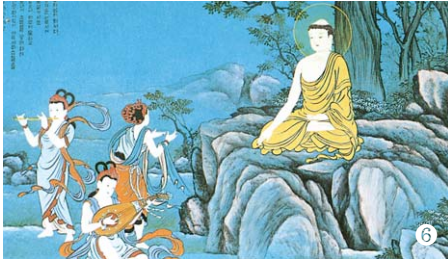
①도솔내의상 ②비람강생상 ③시문유관상 ④유성출가상 ⑤설산수도상

『비람강생상』에서는 카필라국의 마야 왕비가 해산하기 위해 궁전을 떠나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룬비니 동산에서 싯다르타 태자(석가)를 출산하는 장면을 주로 묘사한다. 룬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이 무우수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로 태자를 낳는 장면, 아기 태자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하늘을, 왼쪽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치는 장면, 9마리 용이 입으로 물을 뿜어 아기 태자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장면 등이 많이 묘사된다. 마야부인이 오른쪽 겨드랑이로 태자를 낳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 인도 특유의 신분제인 카스트제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카스트제도는 브라만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승려계급인 ‘바라문’은 머리에서, 왕족과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

는 몸에서, 평민인 ‘바이사’는 허벅지에서, 천민계급인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 장면은 부처님이 왕족출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카스트제도를 타파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신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하여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實有佛性)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힌두교의 킹코브라를 시원으로 하는 불교의 용은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의 성격과 기능을 하는 영물이다. 아홉 마리 용이 입으로 물을 뿜어 아기 태자를 목욕시켰다는 것은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문유관상』에서는 동서남북의 문에서



⑥수하항마상 ⑦녹원전법상

생로병사의 모습이 묘사된다. 싯다르타 태자는 궁중에서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비참함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았다. 싯다르타 태자는 어느 날 동문 밖으로 나갔다가 늙은 노인을 보고 노(老)의 괴로움을 보았으며, 남문으로 나갔다가 병자를 보고 병의 고통을 알았으며, 서문으로 나갔다가 장례행렬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북문으로 나갔다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수행만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유성출가상』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수행하기 위해 부왕의 만류와 사랑하는 아내의 간청을 뿌리치고 몰래 마부 찬다카와 함께 왕궁을 빠져나와 출가하는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설산수도상』에서는 설산에서 고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싯다르타 태자는 강기슭에서 자기의 머리를 자른 뒤 지녔던 보

석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어 슬피 우는 마부 찬다카에게 주어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지나가는 사냥꾼과 옷을 바꾸어 입고 설산에 들어가 굳은 결심을 하고 6년 동안 먹고 자는 것조차 잊으며 고행을 하였으나 거룩한 진리를 얻지 못하였다. 싯다르타 태자는 고행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 근처 네란자라 강에 가서 몸을 씻고 수자타 소년과 만들어 준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자리를 잡아 가부좌 하면서 ‘내 만일 여기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굳게 맹세하였다.

『수하항마상』에서는 마왕 파순이 싯다르타 태자의 성도(聖道)를 방해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마왕 파순(波旬)이 싯다르타 태자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요염한 자기 세 딸을 보내 유혹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도를 방해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싯다르타

태지는 나이 35세인 12월 8일의 새벽에 셋
별이 뜨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부
처가 되었다.

『녹원전법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서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초전법륜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7주 동안 그 보리
수 아래에서 그대로 삼매 속에 들어 계시
면서 해탈락에 머무셨다. 그리고 '나의 이
깨달음을 말해 본들 그 누가 알리오.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설법하지 아니함
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전법을 포기할 생
각을 하셨다.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린 대
범천이 부처님께 간절히 설법할 것을 권청
하매 교화할 중생을 천안으로 살펴보니 옛
날 스승이었던 칼라마와 웃다가 라마뽀다
는 두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전에
같이 수행했던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키로 하고 녹야원을 떠나셨다.

녹야원에서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는 부처
님이 오는 것을 보고 모른 척 하기로 약조
하였으나 부처님을 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권하였다. 녹야원에서 이들 다섯
수행자에게 육락과 고행의 두 극단을 버리
고 중도를 취할 것을 가르친 사성제 법문
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이끄셨으니 이를 계
기로 교단이 만들어졌다.



◎쌍림열반상

『쌍림열반상』에서는 가섭이 달려오자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시는 모습과 사라쌍
수 아래에서 열반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
다. 부처님께서서는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녹야원에
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이래 45년 동안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중
생교화를 위한 법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
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또한 방일하지 않음
에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일체 만물에 영
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여래의
최후의 설법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섭이 달려오자 두발을 관 밖
으로 내보이시는 모습은 '니련하반곽시쌍
부(泥連河畔擲示雙趺)'라 하는데, 다자탑
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영산회상거염
화(靈山會上擧拈花)와 함께 삼처전심(三
處專心)의 하나이다. 선종에서는 삼처전
심을 교외별전의 유일한 근거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신장회 유명륜행 총무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승혜스님 / 법왕사



하늘신의 아들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우주의 끝에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 곳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의 끝에 걸어서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히타야, 이 우주의 끝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나 그 우주의 끝에 걸어서 도달하지 못한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 생애 공중을 날아다니는 도사였습니다. 대단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잘 쓰는 사람이 쓴 화살은 순식간에 날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의 발걸음은 그와 같이 재빨랐습니다. 제 발걸음 폭은 인도 동해와 서해에 걸칠 정도였는데 '이 걸음으로 달려서 우주의 끝에 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100년 동안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다하는 100년이 지나도록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 중도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붓다시여, 그러므로 스승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로히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괴로움도 제거하지 못한다. 나는 양 팔 넓이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우리 몸에서 우주의 끝을 본다.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주는 발생하고 또 사라진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우주이다. 나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알고 가르친다. 아무 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걸어서 세상 끝에 도달

하지 못한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괴로움을 제거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었다. 수행을 완성하여 세상 끝에 도달했다. 세상의 끝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저 세상조차도 바라지 않는다. <윳타 니카야 제1 詩品 제2 상윳타 제26 로히타경>

위 내용은 '내가 바로 우주'라 단언하시는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양 팔을 쭉 뻗으면 키 높이와 같다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도 보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왕사 신장회 총무 유명륜행 신도님을 인터뷰 했습니다.



법왕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경, 법왕사를 다녔던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마침 지인을 반갑게 만났던 법왕사에서 인연은 잘 지어놓아야 함을 알았지요. 당시 백고좌 야간법회에 동참했는데 이년에 열리는 제 29회 백고좌 법회 입재 법문을 맡으신 일진 비구니 스님의 법문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법왕불교대학 18기를 수료하고 난 후에 조계종포교원정식인가를 받은 법왕불교대학에 다시 등록하고 제1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도반들이 정답고 정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신도님들을 법회에서 만나 반갑고 즐겁습니다. 제게 불심을 심어주신 분은 시어머니이십니다. 불교에 입문하도록 이끌어주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향을 쬐고 관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 옛날에 이미 범명을 가지신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리수염주를 선물로 받았고 함께 절에 갔던 날에는 신도님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며느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역시 며느리를 본다면 지혜로우셨던 시어머니를 닮아 그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내가 잘 모르던 점은 정확하고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한 번씩 거론할 정도입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시어머님과 인연이 참 좋았습니다. 만이도 아니면서 시어머님과 같이 생활했던 삼 년은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로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절에 다녀와 설거지 거리를 잔뜩 쌓아놓은 자녀들에게 순간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왜 절에 다녀와서 화를 내느냐’고 되묻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아집에 뭉쳐진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피는 눈을 갖추니까 일상에 변화가 생기더군요. 이왕이면 즐겁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합니다. 나름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인상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많이 밝아졌다는 남편의 칭찬에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말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부처님께서 ‘입 속의 도끼’로 표현하셨다는데 시어머님은 혀를 ‘불 갈’이라 지적하며 조심하게 이르셨습니다. 불자로 자긍심을 가지는 일은 때로 밥상에 마주 앉아 가톨릭 신도인 큰 동서가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할 때, 저도 마음속에 <오관 계>를 새기고 부처님을 존경하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을 닮아야겠다는 기도를 하고 백고좌법회 법사님 설법을 새깁니다. 좋거나 싫거나 누구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싫어하

는 사람은 없더군요. 혹시 처음에 어색하던 상대방도 차츰 달라져서 반갑게 인사를 받아줍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근래 보리암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인데 요즈음에는 스님들께 공손하게 절을 하는 불자를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회 총무를 맡은 지 10년이 됩니다. 법왕사가 창건된 이후 계속 이어온 신장회입니다. 신장회장님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인간적 면모를 갖춘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 대로 신장회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장회 총무를 겸해 우담바라 합창단 부단장소임도 맡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좋은 일기기에 동참합니다. 신행단체 임원은 나 한 사람 수고로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편안하도록 봉사를 하는 분들이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임합니다.

우담바라 합창단 창단멤버로 10년을 활동하면서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정무시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주시고 한복 입는 것도 좋아하지요. 매달 초하루 법회에 법문구절 같은 찬불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신도님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줍니다.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찬불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습

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심장병 수술을 했기에 호흡은 짧지만 수많은 찬불가를 접하는 기회이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주일마다 하는 합창단 연습에 형제들 만남보다 더 자주 보는 회원들입니다. 요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작업도 같이 합니다.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달하는 불자로서 도반들과 경험을 나눠가지면서 연임을 비빔니다. 법왕사 제29회 백교좌법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법문을 듣고 연등 만들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덕일스님께 지장경 공부를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자비도량참회법> 기도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장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정근부터 열심히 하다가 보면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지장보살님으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지장기도와 함께 광명진언을 염송합니다. 딸과 아들을 출가시키고 홀가분하게 앞으로 더욱 봉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법왕사 각 신행단체 임원들이 결속하는 단합대회로 도시락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나들이 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세상 만든다

불기 2559년 5월 25일(음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2559년 전,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돋이 무렵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2천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불자가 이 시대에 처방해야 할 과제들이니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 가지 불교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 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崔怡)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불 밝히시다

연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맑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현우경 민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다. 하지만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숯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관욕(灌浴)이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에 없으므로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봉축표어는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처럼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화해와 자비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가정과 사회의 갈등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과 회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었으면 한다.



법왕사 소식

2015년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0일 운문승가대 강주이신 일진스님의 법문으로 제29회 백고좌대법회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29회 법회는 4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우담바라 합창단 E&양상블 연주회 출연



법왕사 우담바라 합창단이 4월 23일 대구 어린이 회관 피코리극장에서 열린 E&양상블 연주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정무시 선생님이 지휘하는 우담바라 합창단은 이날 연주회에 '아름다운 나라', '새들처럼'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대만스님 30여명 법왕사에서 수행정진 체험

지난 4월 16일 대만의 복지단체 소속 스님들이 1차로 18명, 17일 2차로 18명, 동자승 12명이 법왕사에서 수행중입니다. 이들 스님들의 합숙수행과 강의 관계로 당분간 본당의 일반 신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음력 1일, 15일, 초파일 전후 3일간만 개방하고 5월말까지 통제하오니 불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님들은 수행 정진에 매진하여서 중생제도에 힘쓰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당 기와불사 회향



3월 27일 시작한 본당 기와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이번 불사는 240평 본당 지붕을 동기와로 이어 여법한 도량으로 꾸미는 것으로 1장당 2만원의 보시금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팔상성도 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27일(음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을 시작으로 4월 3일 열반재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중생구제를 위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법회에는 여덟분의 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매일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중

2014년 1월 15일(음력 12월 15일)에 입재한 천일기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초하루와 보름날 오후 2시에 화엄경 약천계 49독 기도를 시

작으로 봉행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매 법회시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불자들이께서도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관음재일 삼사순례 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 경기도 화성 관음사, 안성 석남사, 평택 심복사에서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백고좌, 백중 합동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6월 9일부터 백고좌법회와 백중 합동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법회 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리는 이번 49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45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는 오는 5월 16일 지역의 어르신 1천명을 초청, 푸짐한 잔치를 베푸는 제45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잔치에는 지역의 연예인

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예년과는 또 다른 특별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를 위해 불자 여러분의 자원봉사, 찬조출연, 각종 행사물품 보시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마당에 쉼터와 정자 조성해서 일반에 공개



법왕사는 도량 입구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아담한 정자와 테이블과 의자 10여조를 갖춘 쉼터를 조성하였으니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용품 매장 및 찻집 운영중



법왕사에서는 광장 한 칸에 불교용품 매장과 찻집을 겸한 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며 신행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적과 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최진태 대구시 북구 산격동
 구성일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서재우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김세승 대구시 남구 봉덕2동
 선진스님 대만에서 오신 스님
 정순옥 이정희 김영자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이태희 100부 최옥남 400부 이정상 2000부
 유리광보살 200부
 운문사 승가대 강사 운산스님 300부
 신지원(사법고시 수석합격자) 2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권숙자 구제철 이종출 심보현 김외환
 노귀자 장시덕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전지애 : 천혜향 2박스, 한라봉 2박스
 김제경 : 천혜향 2박스, 한라봉 2박스
 문원미 : 천혜향 2박스, 한라봉 2박스
 이정상 : 백고좌 입제 일체공양

○ 떡 공양 올리신 분

김명자 : 천도재 떡공양 정영미 : 초하루 떡공양
 전숙환 : 백고좌 떡공양 백혜영 : 생일 떡공양
 이세정 : 출가재일 떡공양
 강소남 : 출가재일 떡공양
 강소남 : 신장재일 떡공양
 이승환

○ 물품공양 올리신 분

법운주 : 법왕사 전기밥솥 황춘연 : 소금
 양혜영 : 롤 화장지 20만원
 강유미 : 초파일 공양 수건 1000장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종황 : 3월초 하루 공양미
 김상수 : 공양미
 이영석 : 생활필수품
 양혜영 : 생활필수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법당등 올리신 분

189 우영근 190 이강복 191 서명찬 192 구성일
 193 이종석 194 박종울 195 이원석 196 신지원
 197 김태한 198 정하권 199 김명국 200 박재만
 201 홍순영 202 김오현 203 우성국 204 황치구
 205 유장원 206 신재국 207 고재등 208 김재현
 209 황하기 210 권종오 211 권미경 212 금건수
 213 오광진 214 윤지현 215 최민우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23 이현국 24 김기춘 25 우종원
 26 조혜인(조미자) 27 김태한 28 정하권
 29 권종오, 권오국, 권오삼 30 김현혁 31 한승욱
 32 김창범

○ 꽃등 올리신 분(천수천안입상)

안중현 오경화 장영숙 윤계한 이인수
 노성왕 박말분 채분미 박호황 신명균
 변동윤 배용호 우병철

○ 단청등 올리신 분

권오삼 오광진 성진경

○ 대등 올리신 분

조준형 유성중 이동희 김종갑 권오성

이정상 강영도

◎ 본당 인등 새로 모신 분
박재만 이도량 김성진

◎ 산신단 인등 새로 모신 분
박재만 이동량

◎ 한평불사 하신 분
송상규 윤지현(3평) 최민우(3평) 오광진(3평)
김일곤 신구자 권오삼(10평) 박성호(2평)

◎ 원불 새로 모신 분
3421 박준표 3422 이이분용 3423 이이종관
3424 이김공례 3425 노영국 3426 이노진현

◎ 석탑불사 하신 분
송영철

◎ 기와불사 하신 분
설판 : 한춘자
이지승 이김경남 심명숙 박백규 원형중
신인철 이재학 박이자 조현지 정무시
심보현 심규암 이승민 한동운 한정수
이상석 이상조 김영홍 이이병재 박수영
김상조 신재기 김근환 김상호 조난숙
최정욱 제갈욱 권순득 우영근 신진숙
이덕갑 강민범 이지현 박영승 이지선
이승재 이효조 최준호 최용호
지장회일동 오견복하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남상균 무명씨

왕생극락하옵소서

- ◆ 손진순 영가의 3재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최상이 영가의 6재가 4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손진영 영가의 4재가 4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최상이 영가의 6재가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박옥선 영가의 4재가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조명희 영가의 6재가 4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이기범 영가의 4재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김중국 영가의 4재가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서동석 영가의 4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안복연 영가의 4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민해순 영가의 4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김진태 영가의 4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평생위패 모신 분들

- ♣ 이자모 경주유인 최상이 영가 박순곤 복위
- ♣ 이자모 풍양유인 조명희 영가 서보빈 복위
- ♣ 이자모 의성후인 김중국 영가 김세승 복위
- ♣ 이자모 경주후인 이상우 영가 이자모 청주유인 지태순 영가 이상호 복위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이윤수 최영화 신도님의 차녀 다영 양의 결혼식이 5월 3일에 열렸습니다.
- ♡ 박종욱 신인숙 신도님의 장남 정호 군의 결혼식이 5월 17일에 열렸습니다.
- ♡ 신랑 : 양동훈, 신부 : 김윤지

관음사 일년등 올리신 분

- | | | | |
|--------|--------|--------|--------|
| 1 이우춘 | 2 김외환 | 3 박종출 | 4 신상용 |
| 5 이세정 | 6 조복래 | 7 권효심 | 8 김정순 |
| 9 김성행일 | 10 이재학 | 11 박재만 | 12 구제철 |
| 13 권기욱 | 14 이순금 | 15 이정례 | 16 장재혁 |
| 17 이대각 | 18 최태회 | 19 김임태 | 20 신명균 |

해오름 요양원 소식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실시

요양원의 직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오늘도 건강 관리에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훈련 교육 실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상동 119안전센터 소방관님이 오셔서 직접 소화기 사용법 시범을 보여 주셔서 요양원 직원들은 이제 누구라도 화재 진압 대처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 활성화 위한 놀이치료

놀이치료 시간입니다. 매주마다 놀이치료 선생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저하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로 가족이 되신 오OO 어르신이 제일 열심히 따라 하시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해오름요양원 산책로에 봄내음이 물씬!

요양원의 뜰에도 봄이 찾아 왔습니다. 꽃샘 추위만 가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빨리 산책을 나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쉼터도 있어서 어르신 면회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눠드시고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친한 친구 봉사단(수성구청), 이·미용봉사단(무궁화 미용학원)
참사랑노래 봉사단, 더오카리나 앙상블, 미술심리치료(위드심리치료센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3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이정희 3만원	양봉훈 1만원	김순태 1만원
현종열 1만원	박학순 1만원	배하수 1만원
이재봉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정규 5천원
김민주 1만원	임예숙 1만원	김수라 1만원
양혜진 1만원	김의목 1만원	김태윤 1만원
최분규 1만원	이유태 1만원	박성찬 1만원
정병태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연 5천원
신혜경 5천원	정태교 5천원	엄세비 1만원
류금자 1만원	김희창 1만원	한희록 1만원
여형교 1만원	황미선 2만원	이복희 1만원
박병준 1만원	장승대 1만원	이정연 5천원
김영호 5천원	송정숙 5천원	조성자 5천원
현인숙 1만원	강동균 1만원	황상욱 2만원
송민경 1만원	조일훈 1만원	노수정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성의 1만원	권계화 1만원
이현옥 1만원	장진근 1만원	장우성 1만원
박남희 1만원	진봉희 1만원	백옥수 5천원
송지은 5천원	홍유식 5천원	조인성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정순 3만원	권순영 1만원
전숙희 1만원	권순철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종규 1만원	이명희 1만원	정명선 2만원
신임선 5천원	박경자 5천원	윤광숙 5천원
박희조 5천원	김승환 5천원	서치경 1만원
최경미 1만원	최영희 1만원	박정목 1만원
이채원 1만원	권우국 1만원	김명옥 1만원
윤정언 1만원	채수인 5천원	이호동 5천원
신창호 5천원	김대현 5천원	최윤희 5천원
박성림 1만원	서규하 2만원	석종순 1만원
고연숙 1만원	신진무 1만원	정활수 3만원
권기철 1만원	권명진 1만원	이정화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은경 1만원	김은주 1만원
이현기 1만원	김임태 5천원	정운현 5천원
김상철 5천원	허유미 5천원	박재후 1만원
정시영 1만원	정대영 1만원	권보형 2만원
황지영 1만원	황학영 1만원	홍새미 1만원
김순연 5천원	손달두 5천원	정선옥 5천원
장효주 5천원	박치민 5천원	신수희 1만원

조규인 1만원	남기웅 1만원	김미정 1만원
사공관 2만원	성승길 1만원	강유미 1만원
이정례 5만원	김형택 2만원	박성숙 5천원
이정희 5천원	정옥수 5천원	채욱연 5천원
이전희 5천원	김진현 5천원	정경석 2만원
배수현 2만원	정옥선 1만원	김우영 1만원
신돈식 1만원	김예분 1만원	김경환 1만원
신진숙 1만원	오금옥 1만원	권영희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상환 5천원	이종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권영희 1만원	반룡사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남희 1만원	박귀분 1만원
정경숙 1만원	강심규 5천원	강소남 5천원
윤광숙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순영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신세호 1만원	김원형 3만원
이승미 1만원	김유진 1만원	유명옥 1만원
이용옥 1만원	문정애 2만원	김기덕 2만원
임익균 1만원	김외환 1만원	류운만 1만원
안명희 1만원	강선옥 1만원	박순남 5천원
노귀자 5천원	김영희 5천원	이임숙 2만원
김진성 1만원	이정옥 1만원	김명희 1만원
심종순 5천원	정순옥 5천원	한규매 5천원
정연이 5천원	정무시 1만원	정혜숙 1만원
신화식 1만원	김정임 1만원	장지연 1만원
황준원 1만원	권숙자 1만원	이호조 1만원
이인순 5천원	최창숙 5천원	김봉숙 5천원
조정자 5천원	현영희 1만원	최승임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성자 1만원	오난옥 5천원
장성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금명섭 5천원
이병희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순란 3만원
김정자 5천원	황해숙 5천원	도화순 5천원
신구자 5천원	장재혁 5천원	김기수 2만원
강선희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진현 1만원
조영석 1만원	이혜연진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무기명 39,540원	이강복 3만원
---------	-------------	---------

합계 2,019,540원

◎ 지출내역	
- 식재료 구입	272,000원
- 어르신 나들이외식	121,000원
- 근무복 제작	231,000원
- 쌀구입	850,000원
- 문구류	69,600원
- CMS수수료	88,000원
- 침구류	100,000원
- 가구 구입비	231,000원
- 의료용품 구입	15,000원
- 개인사물함 제작	275,000원
- 부식구입	248,930원
- 주유비	240,000원
- 우편봉투 제작비	55,000원
- 응급비상벨	78,000원
- 약장 구입	44,800원
- 요양보호사 가운 제작	198,000원

3월 총 사용내역 3,117,33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16개
-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6손, 굴 1박스
-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5개
- 이선희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3손, 베지밀 1박스

-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방울토마토 1박스, 초코파이 5박스, 짬뽕 5박스
-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박스
- 장우식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2손
-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박스, 야쿠르트 30개
-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45개
- 이해남 어르신 보호자 : 딸기 1박스
- 한석근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75개
- 강봉자 어르신 보호자 : 비오비타 2박스
-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 김순란 보살 : 과일 3만원 상당
-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50인분
-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 박윤경 : 붕어빵 60개
- 이금연 : 차약, 비누 10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이주원 어르신

신규 입사 종사자

김정옥 요양보호사 최두선 요양보호사

이경자 위생원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오션,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강선희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053)766-5767 팩스.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법원사 문화 강좌 개설

- ◆ **다도**
 -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약력 :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 **합창단**
 - 강사 : 정무시 선생님
 - 약력 : 영남대학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 없음
- ◆ **불화**
 - 강사 : 화공 석학 최윤석 선생님
 - 약력 : 문화재수리 화공 제5346호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4호
83년 일본불화 색채학 전공 수료
대구 경북 미협 심사위원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 **꽃꽂이**
 - 강사 : 승혜스님(비구니)
 - 시간 : 매주 목요일

- ◆ **힐링명상**
 - 강사 : 태광스님
 - 시간 : 매주 목 오후 2시
 - 약력 : 서울동국대학교 교수 역임
남방·티벳·인도 등의 수행처를
편담하며 수련 및 지도
- ◆ **사물놀이**
 -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시간 : 매주 목요일
- ◆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 매주 목요일
 - 회비 :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 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 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서울·경기 분원 관음사 오시는 길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포교 원력으로 재개원 한 관음사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조암 저수지를 비롯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도량입니다. 주지스님은 이번 관음사 개원을 시작으로 더 큰 포교의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 정법 흥포에 매진할 것이며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수희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 신도께서는 수원역 육교 건너 9번 출구에서 시외버스 9802번을 타고 조암터미널 하차 후 6~3번 버스 타고 관음사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1시간 20분 소요>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올미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등 10만원 이상 🌸 영가등 5만원 이상 🌸 사업등 30만원 이상

🌸 단청등 100만원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28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차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법왕사, 우회도로, 공사중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 주지스님 집전 | |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2015년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29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14일차
5월 3일
특별 법문
자광스님
관오사 회주



● 20일차
5월 9일
특별 법문
각성스님
화엄사 주지



● 23일차
5월 12일
특별 법문
가산스님
원웅사 조실



● 28일차
5월 17일
특별 법문
해월스님
전 해인사 강주

- ◆ 일시 : 2015년 4월 20일 ~ 7월 28일 (100일간)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1일차	4월 30일 困	경성스님	해인사 희랑대	21일차	5월 10일 回	일장스님	유마승가대학장
12일차	5월 1일 罽	무불스님	진각사 회주	22일차	5월 11일 冏	현각스님	성불원장
13일차	5월 2일 田	혜조스님	남산 토굴	23일차	5월 12일 冏	가산스님	원웅사 조실
14일차	5월 3일 回	자광스님	관오사 회주	24일차	5월 13일 冏	홍산스님	우리불교 조계종 중정
15일차	5월 4일 冏	승오스님	원각사 주지	25일차	5월 14일 困	덕문스님	통도사 울원장
16일차	5월 5일 冏	동봉스님	우리절 주지	26일차	5월 15일 罽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학장
17일차	5월 6일 困	암도스님	마하무량사 주지	27일차	5월 16일 田	효상스님	선홍사 주지
18일차	5월 7일 困	노후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28일차	5월 17일 回	해월스님	전 해인사 강주
19일차	5월 8일 罽	동훈스님	삼보사 주지	29일차	5월 18일 冏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20일차	5월 9일 田	각성스님	화엄사 주지	30일차	5월 19일 冏	종안스님	전 해인승가대 강사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